

독일 바이에른주 행복 나눔의 집 슐로스 데넨로에 정원

동화 같은 고성과 숲을 품은 고장, 독일 바이에른주 서부 구릉지에 자리 잡은 흥미진진한 정원.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55편, 슈로스 데넨로에 정원 이야기.

The Happy Garden

Nestled into the rolling hillsides of Bavaria, Germany — home to fairy-tale castles and forests — the garden at Schloss Dennenlohe combines serious botanical intention with a playful, eccentric spirit.



독일 남동쪽에 자리한 바이에른주는 어디를 가나 수림이 울창한 구릉지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성이 펼쳐지는 곳으로, 오스트리아,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무릎까지 오는 가족 바지와 '바이스부르스트' 소시지가 유명하며,

바이에른의 주도 뮌헨에서 해마다 열리는 옥토버페스트 축제에서는 커다란 잔에 담겨 나오는 거품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이 외에 북쪽의 뷔르츠부르크에서 남쪽의 뤼첸까지 뻗어 있는 '로맨틱 로드' 역시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멋진 풍광의 탐과 망루, 중세풍 거리를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동쪽으로 약간만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바이에른'이 얼굴을 내민다. 바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슐로스 데넨로에'의 정원과 공원이자.

1734년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저택은 약 2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정원에 둘러싸여 있는데, 1825년 고틀리프 폰 쥐스킨트 남작이 나머지 부지와 함께 이 저택을 사들였다. 부유한 은행가였던 남작은 일곱 자녀에게 저택을 하나씩 사 주었다는데, 그중 하나인 슈로스 데넨로에에는 사유 정원이 있었고, 정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격식을 갖춘 프랑스식 화단에서 편안한 영국풍 시골 정원으로 변모했다. 그러다 1990년에 이르러 식물원과 조경 공원, 가족 공간이 어우러진 지금의 정원 형태를 어느 정도 갖췄다.

지금의 소유주는 로베르트 폰 쥐스킨트 남작이다. 남작은 작고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슈로스 데넨로에의 운영을 맡게 되었지만, 부지는 이미 손색없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아내인 자비네 폰 쥐스킨트 남작 부인과 함께 정원으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이곳에서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을 찾아야 했어요. 향후 40여 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건 생각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꾸며 보자' 결심했죠."

당시 이곳에는 그의 아버지가 조성한 큰 호수가 있었는데, 땅을 파며 나온 흙더미가 호숫가에 독을 이루어 의도치 않게 작은 섬 여러 개가 만들어졌다. 로베르트는 이 섬들을 각양각색의 다리로 연결했다. 중국풍의 기하학 양식 다리부터 프랑스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에 있는 다리를 본뜬 것도 있다.

남작 부부가 새로운 인생의 첫 삼을 뜬 수생 정원은 원래 췌기풀과 갈대가 뒤덮은 땅이었다. "갈대를 벤 뒤 일일이 손으로 걷어 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초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제초제가 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로베르트 남작의 말이다.

In the southeast corner of Germany is Bavaria, a land of fairy-tale castles that borders Austria and the Czech Republic. It's famed for its traditional lederhosen and the mighty tankards of foaming beer that grace the annual Oktoberfest of the state's capital city, Munich. The other obvious attraction for visitors is a trip down the Romantic Road, a route that contains enough turrets, towers and narrow medieval streets to last a lifetime. Stray slightly to the east, however, and you can discover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to Bavaria, in the peaceful elegance of Schloss Dennenlohe's garden and park.

The baroque manor house at Dennenlohe was built in 1734 and sits on an extensive 260,000sqm of gardens. In 1825, Gottlieb Freiherr von Süsskind bought the house, along with the rest of the estate. In fact, he bought a schloss (manor house) for each of his seven children. Since then, some form of private garden has always existed at Dennenlohe. But it wasn't until 1990 that the current vision — part botanical garden, part landscape park and part family space — started to take shape.

Current owner Robert Freiherr von Süsskind took over the running of Schloss Dennenlohe after his father died. Robert harbored a healthy distaste for office life, and the estate was already in capable hands, so he and his wife, Sabine Freifrau von Süsskind, looked to the garden. "I had to find something to start here as a profession," he says. "Working in an office for the next 40 years — that is not my world! So I said, 'OK, we'll start this garden.'"

A sizable lake had already been excavated by his father, the spoil from the dig forming banks around the edges as well as a series of small islands. Robert has connected these with several bridges. Each one has a different character, from a bridge designed in a Chinese-inspired geometric style to one modeled after the bridge in Monet's garden in Giverny, France.

The water garden was one of the first areas the von Süsskinds developed; initially the ground was full of nettles and reeds. "It was horrible work to cut the reeds and then pull them out by hand," Robert recalls. "But we never use pesticides; you never know how they will affect the garden long-term."



정원에는 호수의 작은 섬들을 잇는 굽이진 징검다리도 조성돼 있다. At Dennenlohe, stepping-stones curl between the series of islands that dot the garden's lake.



처음에는 갈대를 없애려고 심었지만,
지금은 초록빛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 될 철쭉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다.
Rhododendrons were first planted
to stop the reeds from taking over
the garden. Today they re a vibrant
complement to its greenery.



재료를 모두 부탄에서 공수해 지은
조경 공원에 자리한 부탄식 사찰
In the landscape park is a small
Bhutanese Buddhist temple, made
from materials from Bhutan.

완만한 곡선의 오솔길 로베르트 남작은 끈질기게 자라나는 갈대를 없애기 위해 철쭉을 촘촘하게 심기로 했다. 점토질의 토양에 토탄을 조금 뿌린 것이고 철쭉의 효과는 대단했다. “묘목을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렸어요. 겨우내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서 빙판 위로 손수레를 끌고 와 구덩이에 토탄을 뿌린 뒤 봄에 철쭉을 심었죠.” 그렇게 정성을 쏟은 덕분일까. 오늘날, 해마다 철쭉이 연출하는 색의 향연은 주위를 에워싼 고즈넉한 초록 숲과 투명하고 너른 호수, 다리로 이어진 섬들을 굽이굽이 지나는 오솔길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물론 이 모든 건 계획한 대로다. 로베르트 남작은 “절대 직선으로 길을 내지 않는다”며 “불운은 곧은길을 따라오고, 행운은 굽잇길을 따라온다”고 말했다.

정원이 여러 번 변화하고 확장하는 사이, 환경과 양식도 한층 풍성해졌다. 미국식 대초원의 목초지, 영국식 장미 정원, 잔디를 심은 원형 극장, 심지어 거대한 인공 늪도 정원 한쪽에 들어섰다. “뉘른베르크 근처 에를랑겐에 있는 한 식물원과 힘을 합쳐 꾸민 공간입니다. 2만 제곱미터의 여지에 멸종 위기에 처한 들지 식물을 심을 서식지를 마련했죠.” 자비네 남작 부인의 말이다.

이같이 장대한 프로젝트 외에도, 슐로스 데넨로에는 어느 대규모 정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기발한 기획 역시 눈에 띈다. 부지 내 기린 형상의 거대한 조각품,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서 있는 고전적인 이오니아식 기둥, 흙과 돌로 쌓은 인공 언덕의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돌무덤 등이 그렇다. 이런 천천난만한 감성은 로베르트 남작의 유년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꾼 정원에 있는 화단을 누비고 다닌 기억이 나요. 그 덩굴성 식물의 부드러운 솜털이 피부에 닿을 때의 감촉도 생생하고요. 어린 제게는 마치 마법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슐로스 데넨로에 조경 공원의 백미는, 비록 축소판이지만 건축 재료를 모두 현지에서 공수해 진짜와 똑같이 만든 부탄식 사찰이다. 부탄은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국민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국민 총행복 지수’의 발상지다. 부탄의 국가 철학은 데넨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즉, 아름다운 정원에 귀한 식물 종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비네 남작 부인은 정원의 인기에 깜짝 놀랐지만,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 기뻐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번은 열 살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멋진 정원은 처음 봐요. 진짜 아름다워요! 징검다리도 건너고 다리 위랑 풀숲 사이도 뛰어다녔는데, 제 평생 가장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라고요.”

글 사진 애니 그린 아미티지

NICE CURVES To combat the ever-encroaching reeds, Robert decided to densely plant rhododendrons. They did surprisingly well in the predominantly clay-based soil, provided they were given some peat. “It took me more than two months to prepare the planting holes,” Robert says. Today, bold splashes of color from these are complemented by the peaceful greens of the surrounding trees, the expanses of clear water and the narrow curling pathways that connect with the bridges between the lake’s islands. The design is deliberate. “We never make a straight path,” says Robert. “Bad things go straight. Good things are curving.”

As the garden evolved and expanded, more diverse environments and styles were introduced, including an American prairie meadow, an island that contains only bamboo, an English rose garden, a grassy amphitheater and even a large artificial swamp. “It’s a joint project with a botanic garden in Erlangen, near Nuremberg,” explains Sabine. “It provides 20,000sqm of extra space and habitat for bog plants that are on the endangered list.”

Alongside this serious aim, Dennenlohe also projects a playfulness seldom seen in large gardens. On the grounds are giant giraffe-like sculptures and classical Ionic columns that reach skyward. This sense of innocent enjoyment may have its roots in Robert’s childhood memories of his grandmother’s garden.

The crowning glory of the landscape park is a scaled-down but authentic Bhutanese Buddhist temple. Its materials are all from Bhutan, the birthplace of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which aims to measure the happiness of its population as an important metric of progress. This philosophy is reflected at Dennenlohe, which not only aims to preserve plant species but also to provide the chance for people to truly enjoy the garden.

Sabine has been surprised by the garden’s popularity and broad appeal. “Last year we had a lot of families,” she says, “and the children really liked it. A 10-year-old boy told me, ‘I never saw such a nice garden — so beautiful! We could run over the stepping-stones and the bridges and through the grasses. It was one of the nicest, happiest days of my life.’”

Text and photographs by Annie Green-Armytage



방문객들은 솔로스 데넨로에의 사유 정원
구역에서 드넓은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로베르트 남작의 아버지가 만든 호수다.

From the Private Garden, visitors can
enjoy an expansive view of Dennenlohe's
immense lake, originally excavated by
Robert Freiherr von Süsskind's father.